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한국의 협력방안

장영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장
ysjang@kiep.go.kr

곽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위원
sikwak@kiep.go.kr

곽소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PEC 연구컨소시엄사무국
전문연구원
sykwak@kiep.go.kr

박은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PEC 연구컨소시엄사무국
연구원
ebpark@kiep.go.kr

문성만 전북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nopasanada@gmail.com

남상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다자협력연구실 연구책임자
synam@kisdi.re.kr



차 례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 및 분석 결과
3. 정책 제언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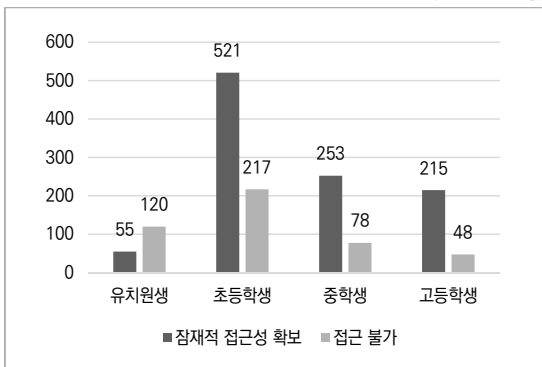
- ▶ APEC은 그동안 역내 경제성장과 지역통합의 핵심 수단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여 왔으나, 이는 디지털 포용 차원에서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라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
- ▶ 본 연구는 APEC의 디지털 포용 협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APEC 주요국의 디지털화 진전 정도, 디지털 전환 정책과 역내 디지털 협력 논의, 디지털화의 경제적 효과 등을 살펴보았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APEC 역내 디지털화는 상당히 급속하게 진행되었으며 전 세계 평균과 비교하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역내 회원국 간 ICT 접근성 및 활용성, 디지털 경쟁력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함.
 - APEC 차원과 개별 회원국 차원의 활발한 디지털 경제 논의와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포용과 디지털 국제협력 분야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국가별 중점 추진 분야도 상이함.
 - APEC 역내 디지털화의 진전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발전 단계별로 다르고 디지털화의 양태(ICT 접근성과 활용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한국(APEC 역내 디지털 선도국)과 베트남(개도국)을 대상으로 디지털화와 노동시장 성과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개인의 인적자본으로서 디지털화 수용도가 취업확률과 임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APEC이 디지털 포용 확대를 위한 국제공조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강화함에 있어서 고려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역내 디지털 협력 강화를 위한 한국의 협력방안을 제안함.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는 그동안 역내 경제성장 및 지역통합(REI: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의 핵심 수단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여 왔음.
 - 2017년 마련한 ‘APEC 인터넷 디지털 경제 로드맵(APEC Internet and Digital Economy Roadmap)’을 통하여 APEC 회원국 간 기술적, 정책적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
 - 2020년 11월 20일 APEC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채택된 ‘푸트라자야 비전 2040’에 향후 20년 동안의 중점 추진 분야로 ‘디지털 경제와 기술을 통한 포용적 경제 참여’를 포함
-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디지털화가 역내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점은 긍정적이거나, 디지털 포용 차원에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함.
 - 디지털화의 진전이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개선, 경제구조 고도화, 신규 산업발전 및 평균소득 증대를 통해 역내 회원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음.
 - 그러나 디지털화가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성·활용성 격차로 인한 국가간·계층간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유발하고 이를 심화시키는 악순환 구조를 초래
 - 이러한 디지털 격차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화가 더욱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심화될 수 있음.

그림 1. 원격지 교육의 접근성 어려움(학교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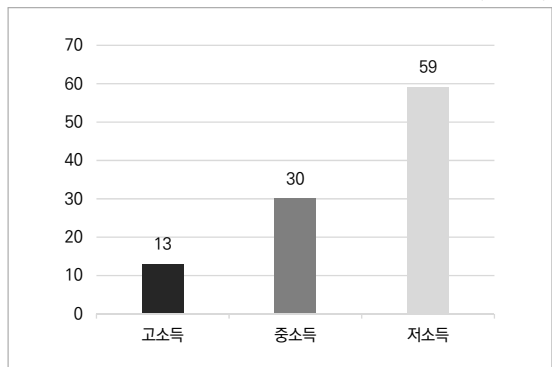
(단위: 백만 명)



자료: Richter, Felix(2020), "At Least 463 Million Students Cut Off From Remote Learning," Digital image,(september 14), <https://www.statista.com/chart/22799/number-of-children-with-and-without-access-to-remote-learning-programs/>(검색일: 2020. 4. 3)를 저자 재가공.

그림 2. 원격지 교육의 접근성 어려움(소득수준별)

(단위: %)



자료: Roper, Willem(2020), "Low-Income Parents Struggle with Remote Learning," Digital image,(september 14), <https://www.statista.com/chart/22896/remote-learning-obstacles/>(검색일: 2020. 4. 3)를 저자 재가공.

- 본 연구는 APEC 회원국의 디지털화 진전에 따른 명암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APEC 역내 디지털 포용 논의와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역내 디지털 포용 국제공조 플랫폼으로서 APEC의 기능 강화 방향과 한국의 디지털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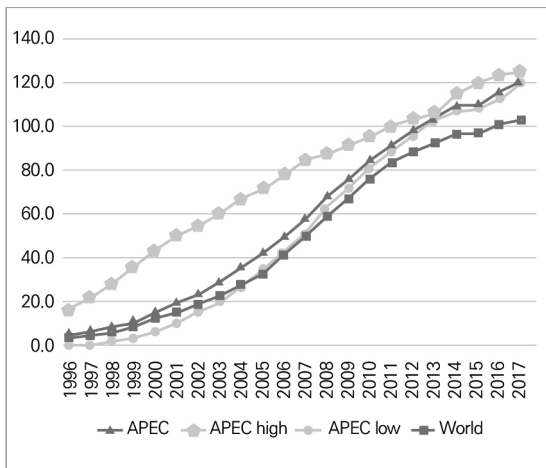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 및 디지털 협력

- 디지털화 측정 변수들의 변화 패턴을 APEC 회원국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APEC 역내 디지털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정도는 전 세계 평균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나, ICT (양적) 접근성과 (질적) 활용성 차원의 디지털 격차는 APEC 고소득 회원국과 저소득 회원국 간 다소 다른 양상을 보임.
 - 예를 들어, APEC 고소득/저소득 회원국 간 무선전화 가입 격차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커졌다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그림 3 참고).
 - 반면, 디지털 정보의 저장·관리·활용 등 보다 높은 수준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되어 있는 보안 인터넷 서버 수의 두 그룹 간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그림 4 참고).

그림 3. 인구 100명당 무선전화 가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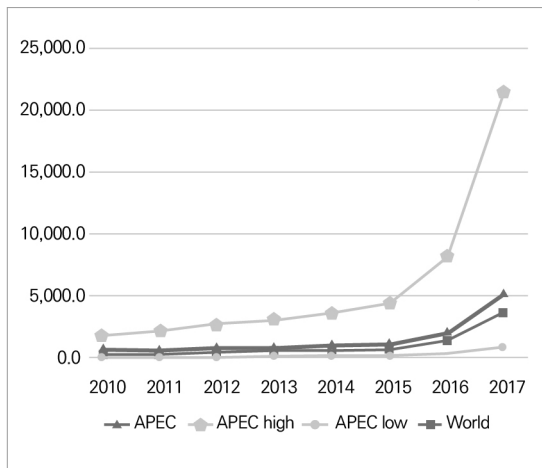
(단위: 개)



자료: World Bank WDI.

그림 4. 인구 100만 명당 보안 인터넷 서버 수

(단위: 개)



자료: World Bank WDI.

- 세계경제포럼, 1)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2) 등이 발표하는 지수를 활용하여 APEC 역내 개도국들의 디지털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ICT 인프라 등 접근성 측면의 디지털 격차는 해소되고 있는 반면, 기업의 활용도 및 경제 영향력 측면에서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함.

그림 5. APEC 주요 개도국 네트워크 준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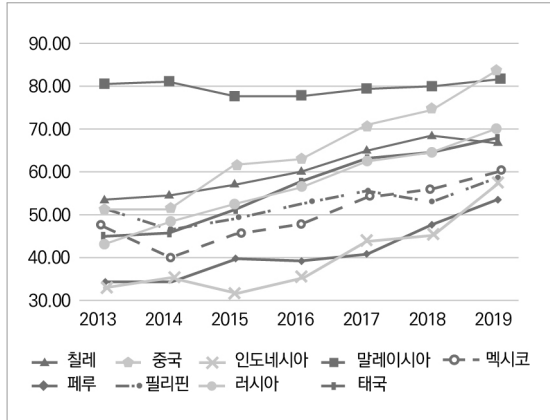
	경제적 영향력	신기술 준비도	콘텐츠
한국	69.4	65.4	53.9
칠레	17.6	28.8	49.2
말레이시아	49.5	52.0	51.8
러시아	23.8	28.4	52.7
중국	34.9	50.7	35.4
멕시코	30.1	27.3	41.4
태국	29.1	31.1	39.3
페루	10.9	17.5	38.1
인도네시아	18.9	35.2	26.7
필리핀	42.5	28.8	37.0
베트남	44.5	29.4	36.4
선진국	52.8	63.9	72.7

주: 1) 회원국 중 점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더 진해지고, 낮은 국가일수록 점점 연하게 표시.

2) 선진국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싱가포르, 일본, 한국 등 7개국의 평균임.

자료: WEF Network Readiness Index, <https://www.networkreadinessindex.org>(검색일: 2020. 10. 3)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6. APEC 주요 개도국 디지털 경쟁력 지수 (단위: 0~100점)



자료: IMD, 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Ranking 2019(검색일: 2020. 4. 3)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APEC 역내 디지털 협력 논의를 살펴보기 위하여 연도별 APEC 주제 및 핵심의제와 디지털 경제 관련 사업의 추세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을 식별하였음.

- 2017년에 처음으로 APEC 핵심의제에 '디지털 시대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쟁력 및 혁신 강화'가 포함되면서 매년 주제 및 핵심의제에 포함
- 2020년에는 '디지털'과 '포용'이라는 단어가 핵심의제(디지털경제/기술을 통한 포용적 경제 참여)에 동시에 사용되었음.
- 2006~20년 9월까지 APEC 사업명을 분석한 결과 총 2,215개 사업 중 723개 사업(32.6%)이 디지털 경제 관련 사업이고 그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최근에는 감소
- 디지털 경제의 융·복합적 특징에도 불구하고 APEC 포라 간의 상호 연계 및 공동 협력사업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한계를 보임.

1) WEF(World Economic Forum)의 네트워크준비지수(NRI: Network Readiness Index).

2)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의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Ranking).

2) 아시아·태평양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비교 분석

● 텍스트마이닝 기법³⁾을 활용하여 APEC 역내 디지털 선도국 4개국(한국, 미국, 중국, 일본)과 개도국 2개국(베트남, 말레이시아)의 2010~19년 기간 디지털 전환 정책을 비교한 결과, 그룹별·국별로 정부의 중점 추진 정책에 차이를 보였음(그림 7, 그림 8 참고).

- 디지털 선도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기본 및 응용 연구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인재 유치 및 개발에 높은 관심을 두고 있었음.
- 디지털 개도국은 상대적으로 인프라 조성, 공공분야 개혁, 산업생태계 조성 등 정부주도로 민간에 대한 직접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접근방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디지털 선도국과 개도국 모두 디지털 전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디지털 포용과 디지털 분야 국제협력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그간의 APEC 역내 디지털 전환 정책들이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의 경제성장 전략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서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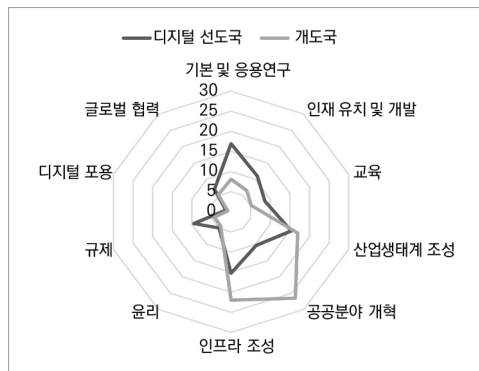
그림 7. 2010~19년 국별 디지털 전환 정책 중점분야 히트맵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기본 및 응용연구	9.5%	30.7%	13.0%	20.1%	10.1%	5.8%
인재 유치 및 개발	17.5%	8.8%	9.5%	7.6%	4.4%	8.9%
교육	8.1%	5.6%	7.0%	10.5%	4.6%	5.8%
산업생태계 조성	17.0%	7.2%	17.9%	15.2%	10.5%	24.3%
공공분야 개혁	10.3%	10.0%	11.7%	9.7%	33.6%	18.6%
인프라 조성	13.5%	19.1%	14.6%	15.7%	23.4%	20.3%
윤리	4.3%	9.3%	8.9%	2.4%	4.9%	3.6%
규제	8.6%	6.3%	11.3%	10.1%	4.0%	4.5%
디지털 포용	2.0%	0.8%	1.1%	1.1%	0.6%	1.2%
글로벌 협력	9.1%	2.2%	4.9%	7.5%	4.0%	6.8%

자료: 저자 작성.

그림 8. 디지털 선도국과 개도국의 중점분야 비교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3) 디지털 전환 정책의 중점분야를 10가지(기본 및 정책연구, 인재개발 및 유치, 교육, 산업생태계 조성, 공공분야 개혁, 인프라 조성, 윤리, 규제, 디지털 포용, 글로벌 협력)로 구분하고, 우선 텍스트 마이닝의 전처리 기법(processing approach)을 적용한 후 단어표상 기법 중 단어-역문서 빈도(TF-IDF: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기법을 사용하였음. 보다 자세한 방법론은 황현주 외(2019) 참고.

3)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경제성과

① APEC 역내 디지털화와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 분석

- 디지털화와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선 또는 무선 전화 가입 수로 측정된 ICT 접근성이 용이하고, 유선 브로드밴드 서비스 이용자 비중으로 측정된 ICT 이용강도가 강한 나라일수록 경제성장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APEC 역내 디지털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설명변수	피설명변수: 1인당 실질 GDP의 성장률					
	(1)	(2)	(3)	(4)	(5)	(6)
유선전화 가입자 수	0.150					
변화율(100명당)	(0.141)					
무선전화 가입자 수		0.086***				
변화율(100명당)		(0.015)				
유무선 전화 가입자 수			0.087***			
변화율(100명당)			(0.015)			
인터넷 이용자 비중				0.099***		0.105***
변화율(%)				(0.035)		(0.038)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0.122	
변화율(100명당)					(0.114)	
인터넷 이용자 중 브로드밴드 비중						8.790*** (3.124)
관측치 수	374	374	374	370	288	284
경제 수	17	17	17	17	17	17

주: 랜덤효과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음.

자료: 세계은행 WDI 데이터베이스, Penn World Table(검색일: 2020. 7. 20).

② APEC 역내 디지털화와 소득불평등 간의 상관관계 분석

- 디지털화와 소득불평등 간의 관계를 경제발전 단계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에 따라 디지털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 고소득 그룹 국가의 ICT 접근성 개선과 ICT 활용강도 강화는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지만, 저소득 그룹 국가의 경우 두 지표 모두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경향이 나타남.

표 2. APEC 역내 디지털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설명변수	피설명변수: 지니계수					
	(1)	(2)	(3)	(4)	(5)	(6)
유선전화 가입자 수*	-0.086					
고소득	(0.051)					
유선전화 가입자 수*	0.123					
저소득	(0.079)					
무선전화 가입자 수*		0.031*				
고소득		(0.016)				
무선전화 가입수*		-0.015				
저소득		(0.010)				
유무선 전화 가입자 수*			0.029			
고소득			(0.017)			
유무선 전화 가입자 수*			-0.016			
저소득			(0.010)			
인터넷 이용자 비중*				0.012		-0.005
고소득				(0.020)		(0.034)
인터넷 이용자 비중*				-0.091***		-0.099***
저소득				(0.023)		(0.024)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0.078	
고소득					(0.060)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0.250**	
저소득					(0.102)	
인터넷 이용자 중 브로드						4.983
밴드 비중*고소득						(3.804)
인터넷 이용자 중 브로드						-6.120
밴드 비중*						(4.376)
관측치 수	389	390	389	387	319	316
경제 수	18	18	18	18	18	18

주: 고정효과(fixed effects)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음.

자료: 세계은행 WDI 데이터베이스, Penn World Table, The Standardized 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 Version 8(검색일: 2020. 7. 20).

● 이러한 추정결과는 고소득국과 저소득국이 디지털 전환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함.

- 디지털 전환 정책을 통하여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려 할 때 고소득 그룹에서는 악화되는 불평등 완화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등 상대적 약자에 대한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함.
- 반면, 저소득국은 디지털 전환을 통하여 경제성장뿐 아니라 소득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인프라 건설을 통해 디지털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4)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노동시장 성과: 한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① 디지털화와 취업확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 디지털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의 구체적인 파급경로를 식별하기 위하여 고소득 그룹을 대표하는 한국과 저소득 그룹을 대표하는 베트남을 대상으로 분석단위를 개인으로 설정하고 디지털화가 고용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노동자 개인의 관점에서 디지털화는 개인의 컴퓨터 및 무선전화기 사용시간, 인터넷 이용시간과 비중 등으로 측정할 수 있음.
- ICT 이용강도와 취업확률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한국과 베트남 모두에서 총 컴퓨터 이용시간·비중, 모바일과 인터넷 이용비중의 증가는 노동자의 취업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베트남 샘플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상대적으로 약했음.
 - 이는 한국의 경우 취업을 위해 ICT 이용이 필수적인 직군이 대부분인 반면, 베트남은 아직 ICT 이용이 필수적이 아닌 직군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됨.

표 3. ICT 이용강도가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

설명변수	피설명변수: 취업확률												
	한 국						베트남						
	(1)	(2)	(3)	(4)	(5)	(6)	(1)	(2)	(3)	(4)	(5)	(6)	
컴퓨터 이용시간 (업무)		0.012** (0.005)						-0.002 (0.004)					
컴퓨터 이용시간 비중(업무)	0.875*** (0.170)	0.558*** (0.215)					0.706*** (0.206)	0.756*** (0.242)					
모바일 이용시간 (업무)				0.003 (0.007)							-0.003 (0.004)		
모바일 이용시간 비중(업무)			0.724*** (0.239)	0.653** (0.298)					0.351 (0.259)	0.444 (0.292)			
인터넷 이용시간 (업무)						0.007 (0.005)							-0.001 (0.003)
인터넷 이용시간 비중(업무)					0.660*** (0.214)	0.440* (0.256)						0.145 (0.257)	0.172 (0.289)
관측치 수	656	656	656	656	656	656	736	736	736	736	736	736	736

주: Probit 모형(5.1)을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여 추정하였음.

자료: 한국리서치 설문조사.

② 디지털화와 임금 간의 상관관계 분석

- ICT 이용강도와 임금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한국과 베트남 모두에서 컴퓨터·모바일·인터넷 이용 비중의 증가는 노동자의 임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에 차이가 있음.

표 4. ICT 이용강도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

설명변수	피설명변수: 취업확률												
	한 국						베트남						
	(1)	(2)	(3)	(4)	(5)	(6)	(1)	(2)	(3)	(4)	(5)	(6)	
컴퓨터 이용시간 (업무)		0.006 (0.005)						0.005 (0.006)					
컴퓨터 이용시간 비중(업무)	0.986*** (0.211)	0.819*** (0.262)					0.141 (0.489)	-0.021 (0.538)					
모바일 이용시간 (업무)				-0.008 (0.006)							-0.005 (0.008)		
모바일 이용시간 비중(업무)			0.503* (0.291)	0.722** (0.366)					1.313*** (0.494)	1.459** (0.566)			
인터넷 이용시간 (업무)						-0.002 (0.004)							-0.004 (0.006)
인터넷 이용시간 비중(업무)					0.846*** (0.260)	0.926*** (0.297)						0.455 (0.492)	0.638 (0.542)
관측치 수	482	482	482	482	482	482	517	517	517	517	517	517	517

주: OLS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음.

자료: 한국리서치 설문조사.

3. 정책 제언

1) 역내 디지털 포용 국제공조 플랫폼으로서 APEC의 기능 강화 방향

- 디지털화에 따른 편익을 극대화하면서 디지털화가 초래하는 디지털 격차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디지털 경제에 대한 APEC 논의의 방향성을 그동안 무게 중심을 두었던 ‘디지털 성장’에서 ‘디지털 성장’과 ‘디지털 포용’ 간의 균형을 맞추는 접근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OECD, ASEAN, G20 등 다른 국제기구나 협의체들이 여전히 디지털 혁신을 통한 성장에 방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APEC이 선제적으로 디지털 포용에 관심을 가지고 ‘디지털 포용 국제공조 플랫폼’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APEC이 '디지털 포용 국제공조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강화함에 있어 고려할 방향성을 제시
 - 융·복합성이 디지털 경제의 중요한 특성인 점을 고려하여 APEC의 중요한 강점의 하나인 다양한 주제별·영역별 포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 협력에 있어 APEC 포라 간의 협업이 강조되어야 함(effective collaboration within APEC fora).
 -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협력체인 APEC의 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디지털 포용에 대한 다양한 경제발전 단계별 회원국들의 상이한 이해관계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회원국 간의 협력이 중심되어야 함(balanced cooperation among APEC economies).
 - 다른 국제기구와 지역협의체와 달리 민관협력을 꾸준히 강조해 온 APEC의 특성을 활용하여 디지털 포용 이슈에 대한 정부-민간기업-전문가 간의 삼각공조 채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야 함(public-private-expert triangular partnership).

2) APEC 역내 디지털 포용 강화를 위한 한국의 협력방안

- 디지털 강국으로서 강점을 활용하여 한국이 APEC 내에서 디지털 포용 의제를 선점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규칙과 기준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리더(rule-setter)가 되기 위한 협력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① 디지털 포용 이슈에 대한 포라 간 또는 회원국 간 협력 강화를 주도

- 한국이 2018년에 제안한 APEC 디지털 혁신기금(APEC Digital Innovation Sub-Fund)의 사업 적합성 평가 기준에 '포라 간 협력' 또는 '디지털 포용' 항목을 추가하거나 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 등을 제안함으로써 포라 간 또는 회원국 간 디지털 포용 협력을 강화
 - 현재 APEC 내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두 포럼인 디지털경제운영그룹과 정보통신작업반은 주요 관심 및 사업분야, 사업자금 조달 등에서 상이한 특성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호 보완적, 협력적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② 디지털 포용과 관련된 효과적인 정책·사업 내용과 모범사례 공유를 주도

- 한국이 2018년에 APEC 정상회의에서 제안하여 2020년 11월에 완료된 '포용성 정책 사례집'을 참고하여, APEC 회원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중 디지털 포용 관련 성공사례를 포함하는 '디지털 포용 정책 및 집행 모범 사례집' 발간 및 배포 사업을 추진하고,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확산
 - 특히 한국이 2020년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구조 패러다임 전환 추진 과정에서 발표하여 현재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그 성공사례를 APEC에 전파·공유

③ APEC 역내 디지털화 지수 개발과 경제적 효과 측정 연구 주도

● 디지털 포용성 확대를 위한 APEC의 협력과 정부의 정책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APEC의 특성을 반영한 디지털 포용 관련 디지털화 측정 지표·지수 개발사업과 역내 디지털 전환 정책을 분석하는 연구사업을 지원

- 일반적인 디지털 경제의 특성이 반영된 지수를 개발하되, 그 지수는 APEC의 고소득 그룹과 저소득 그룹의 경제발전 단계와 ICT 인프라 상황을 고려하여 회원국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고안되는 것이 필요함.
- 디지털화 측정 지표와 지수 개발을 통하여 역내 회원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과 디지털 전환이 초래하는 효과에 대한 분석과 연구조사를 지원

④ APEC 디지털화 데이터 수집·관리를 위한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APEC 회원국의 디지털화 현황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지수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APEC 디지털화 통합 데이터 정보시스템(ADIDIS: APEC Digitalization Integrated Data Information System)’ 구축 사업을 추진

- APEC 내에서 특정 워킹그룹, 포라별로 산재되어 논의되는 디지털화 이슈를 디지털 관련 데이터와 함께 하나의 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ICT 강국인 한국 전문가가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아울러 동 시스템을 통하여 구축된 APEC 디지털화 데이터를 역내 민간 경제협력체인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와 공유하고 디지털 포용 전략적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방안도 고려 **KIEP**